

탄핵심판에 쏠린 눈...너도 나도 오전 11시 TV 앞으로

대학 강의 빠지고 5·18광장으로 직장인, 현재 선고 뒤 부서 회식 광주·전남학교 교실서 중계 시청 방청석 경쟁률 4500대 1 최고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방청 경쟁률이 4500대 1을 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들은 실시간 생중계되는 역사적 순간인 탄핵 심판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00여 일이 넘는 탄핵정국 동안 기다렸던 현재의 선고 기일이 발표되면서 광주와 전남은 온통 '탄핵' 얘기로 가득했다.

선고 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잡히면서 해당 시간 수업이 있는 대학생들은 강의 수강에 참여하지 않고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성병수(26)씨는 "오전에 강의가 있지만 역사적 순간을 친구들과 함께 지켜보기 위해 수업을 빠지기로 했다"며 "비상계엄 이후 일어난 사회 분열이 현재의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들이 통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저마다 심판 결과를 예측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회식을 계획한 곳도 있다.

직장인 강세일(32)씨는 "휴식 시간 직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윤석열 탄핵 이야기만 한다. 모두 4일 있을 현재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회사에서도 TV를 켜두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인(31)씨의 직장 부서는 선고 기일이 발표되는 날 회식하기로 했다.

한씨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즉각 심판받을 줄 알았지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너무 길어져 답답했다"며 "4일 현재의 상징적인 결정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기쁜 마음으로 술 한잔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민주시민 교육의 과정으로 활용해달라며 '탄핵 심판 관련 생중계 TV 시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광주 성덕고의 2학년 학생 31명을 비롯해 광주·전남의 다수 학교 학생들이 탄핵심판 선고 중계를 시청할 예정이다.

윤석열정권각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시민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같은 장소에서 오후 7시에 승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선고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방청석 경쟁도 뜨거웠다. 현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직접 볼 수 있는 일반인 방청석 20석 추첨에 이날 오전 9시 기준 9만여명이 신청해 4500대 1의 경쟁률을 넘겼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당시 일반인 방청석 60석에 1278명이 신청, 경쟁률은 21대 1이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는 일반인 방청석 24석에 1만9096명이 신청, 경쟁률은 796대 1의 수치를 보였다.

현재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고 추첨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기자가 직접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방청 신청 예약을 시도했는데 대기인원이 3만2000여명을 넘었다.

정승우 수습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광주 서구, 제6기 서구주민기자단 위촉식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3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제6기 서구주민기자단 위촉식을 가졌다. 주민기자단은 앞으로 2년간 서구소식지 '함께우뚱서구'를 통해 서구 주민들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현장 소통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광주 서구 제공

'10대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술 취했다" 주장

박씨, 만취·우발적인 범행 주장 검찰, 무기징역 아닌 사형 요청 5월 1일 항소심 선고 재판 예정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이 항소심 공판에서 이번엔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주장했던 '살인죄' 적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고, 박씨 또한 심신미약과 사실 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0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10대 여학생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박씨는 2차 가해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이 운

영하는 술집과 노래방에 들어가 살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는 1심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박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쫓다운 나이에 꿈을 그리지도 못하고 10대 여학생이 억울하게 당했다"며 "피고인은 아직 30대여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되면, 10년 후 가석방 등으로 또 다시 출소해 범죄를 저지러 수 있다. 사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의견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은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은 만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선처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5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유철 기자

건조한 올봄 광주·전남 산불 급증...“경각심 가져야”

지난달 1일부터 벌써 17건 발생 평년비 고온·건조...강수량 '절반' '봄철 산불 위험, 각별한 주의'를

최근 영남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빈발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관련 피해가 속출했다. 고온·건조한 날씨와 이례적으로 적은 강수량이 화재 발생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3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에서 4건, 전남에서 1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지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산불이 난 셈이다.

특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광주·전남 지역의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가 약 40건인 점을 감안하면, 올 봄

들어 이미 평년의 절반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도 3시49분께 화순 백야면 옥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관계당국은 인력 25명과 소방헬기 3대 등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 불로 나무와 잡초 등이 소실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올봄 유독 잦은 산불 발생의 원인은 고강도를 동반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점이 지목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월 기후특성' 등을 보면, 지난달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8.6도로 평년(7.3도)보다 1.3도 높은 수치였다.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피해'가 잇따른 3월 하순에는 광주·전남 지역 역시 이례적으로 고온건조한 기후를 보였다. 하순 평균기온은 11.2도로 역대 네번째로 높았

며, 지난 26일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곡성·구례·여수·광양·순천 등)에 발효된 건조주의보는 지난 2일까지 지속되기도 했다. 강수량은 44.0mm로 평년(79.7mm) 대비 55.2% 수준에 그쳤다.

또한 봄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고북저' 형의 기압배치를 이루게 되면서, 공기의 속도가 빨라져 강한 서풍이 불어온 것도 화재 위험을 키운 이유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산불 발생 위험이 당분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선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5월까지 실효습도가 저조해 봄철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특히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빈번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이정준 수습기자

'뇌물 요구'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 징역 10개월 구형

메달리스트 A씨 '무죄' 주장

공기업 직원으로 일하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3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려 뇌물을 요구했다고 봤다.

A씨는 "돈을 빌리려고만 했는데, 이 사실로 민원 제기자에게 협박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유철 기자

GGM노조, 노사민정 중재안 거부... "집중교섭 제안"

"한달 협상 통해 타결 도모" 요구 조정·중재특위 활동기간 연장도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35만대 생산까지 파업을 유보하라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갈등 조정·중재안을 거부하며 사측에 한 달간 집중 교섭을 제안했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이하GGM노조)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실에서 GGM조정 중재안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유보의 목적이 생산 차질을 막는다면 노사가 한 달간 협상의 기간을 두고 집중교섭을 통

해 조속히 타결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시한 '35만대 달성까지 파업 유보'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GGM노조는 또 "협상력의 근간인 파업을 유보하라는 것은 식물노조로 교섭하라는 뜻"이라며 "노동법을 무시하는 협상자와 협상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도 요구했다.

GGM노조는 "노사 갈등을 살펴볼 상설 기구가 없는 만큼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

기 위해 협의회의 활동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며 "이번 노조의 제안이 수용돼 GGM이 헌법가치와 노동3권을 인정하는 민주적 일터로서 노사가 상생하는 길로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GGM에게 35만대 생산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 △노사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권고했다.

경영진에게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및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권고했다. 이정준 수습기자